

좋다 vs 좋아하다

훌륭하다, 마음에 들다 · 무엇을 즐기고 아끼다

좋다는 형용사로, 좋아하는 대상이 주어가 되어 다음 조사를 씁니다: 이/가. 좋아하다는 동사로, 좋아하는 대상이 목적어가 되어 다음 조사를 씁니다: 을/를.

■ 한눈에 비교

단어	핵심 의미	ニュ앙스	자주 쓰는 형태
좋다	훌륭하다; 마음에 들다	형용사. N이/가 좋다. 말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이나 일반적인 평가(날씨가 좋다).	N이/가 좋다 날씨가 좋다
좋아하다	무엇을 즐기고 아끼다	동사. N을/를 좋아하다. 3인칭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쓸 수 있습니다.	N을/를 좋아하다 -는 것을 좋아하다

■ 차이점

- 단어에 맞는 조사를 쓰세요.** 둘 다 ‘김치를 즐겨 먹는다’는 뜻입니다: 저는 김치가 좋아요 ○ / 저는 김치를 좋아해요 ○. 두 형태를 섞는 것이 대표적인 실수입니다: 김치를 좋아요 × / 김치가 좋아해요 ×.
-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→ 좋아하다.** 좋다는 싫다, 덩다처럼 말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나타냅니다.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-아/어하다 동사를 씁니다: 동생은 축구를 좋아해요 ○ / 동생은 축구가 좋아요 ×.
- 좋다에는 ‘훌륭하다’라는 뜻도 있습니다.** 날씨가 좋아요 (날씨가 맑고 기분 좋음), 이 가방은 좋아요 (가방의 품질이 훌륭함). 좋아하다는 ‘훌륭하다’라는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: 날씨가 좋아해요 ×.
- 느낌의 미묘한 차이.** 김치가 좋아요는 그 순간의 감정이나 따뜻한 말투로 들리고, 김치를 좋아해요는 자신의 취향에 대한 사실처럼 들립니다. 둘 다 일상에서 자주 씁니다.

문장	좋다	좋아하다
저는 한국 드라마가 정말 ____.	◎	×
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____.	×	◎
제 동생은 축구를 ____.	×	◎
오늘은 날씨가 ____ 산책할까요?	◎	×
우리 강아지는 산책하는 것을 아주 ____.	×	◎

◎ 자연스러움 ○ 가능 △ 어색함 × 틀림

■ 한 걸음 더

같은 원리는 다음에도 적용됩니다: 싫다 / 싫어하다 (싫어함), 그리고 바람을 나타내는 -고 싶다는 자신에게, -고 싶어 하다는 다른 사람에게 씁니다. 조사는 다음을 복습하세요: 이/가 및 을/를.

■ 연습 문제

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: 좋다, 좋아하다

- 제 친구는 한국 음식을 정말 ____.
정답 좋아해요 — 목적격 조사 을/를 + 3인칭 → 좋아하다.
- 날씨가 ____ 밖에 나갈까요?
정답 좋아요 — 날씨가 ‘좋다’는 평가 — 형용사입니다.
- 저는 여름이 ____.
정답 좋아요 — 조사 이가 있으므로 좋다를 씁니다.
- 우리 아이는 사과를 ____.
정답 좋아해요 — 을/를과 3인칭 → 좋아하다.
- 이 식당은 음식이 맛있고 값도 싸서 ____.
정답 좋아요 — 식당이 훌륭하다는 평가 → 좋다.

■ 예문

- 저는 김치가 좋아요.
- 저는 김치를 좋아해요.
- 제 친구는 매우 음식을 좋아해요.
-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좋아요.
- 이 가방은 가볍고 좋아요.
- 주말에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.

■ 자주 하는 실수

✗ 저는 고양이 좋아요.

○ 저는 고양이를 좋아해요.

좋아하다는 동사이므로 을/를을 쓰고, 이/가는 좋다에만 씁니다(저는 고양이가 좋아요도 맞는 문장입니다).

✗ 저는 음악을 좋아요.

○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.

좋다는 형용사이므로 목적어를 가질 수 없습니다: 음악을 좋아해요 또는 음악이 좋아요로 쓰세요.

✗ 제 친구는 한국 영화가 좋아요.

○ 제 친구는 한국 영화를 좋아해요.

좋다는 말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이므로,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다로 씁니다.